

빛고을 무대 열기 모은 '제40회 광주연극제' 성료

극단 시민 '산불' 대상...광주 대표작 선정

광주연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작 역량을 겨루는 '제40회 광주연극제'가 막을 내렸다. 40년 전통의 무대에서 올해 광주를 대표해 대한민국연극제에 출전할 작품도 가려졌다.

지난 10-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등에서 '백조의 노래' 등 4개 작품 열린 경연 대상작 대한민국연극제 지역대표 출품

(사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광주연극협회)가 주최한 제40회 광주연극제가 지난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 공동 미로극장 1관에서 열린 폐막식과 시상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983년 시작된 광주연극제는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출전할 광주 대표 극단과 작품을 선정하는 공식 지역 예선대회다. 광주를 대표하는 프로 극단들이 참여해 작품성과 창작 역량을 겨루는 무대로, 해마다 지역 연극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축제로 자리해 왔다.

올해 경연에는 연극문화공동체 DIC의 '백조의 노래', 극단 까치들의 '성(性)스러운 수다', 극단 시민의 '산불', 극단 터의 '스무살의 비망록' 등 4개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은



극단 시민의 '산불' 공연 모습



'제40회 광주연극제' 폐막식이 지난 14일 공동 미로극장 1관에서 열렸다.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다.

심사는 배우 강성해(극단 앙상블 대표), 연출가 박정석(극단 바람풀 대표), 백현미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맡아 작품성과 연기, 연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대상의 영예는 극단 시민의 '산불'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사실주의 희곡 '산불'을 동시대적 연극 언어로 재해석한 무대로 평가받았다. 대사 중심의 전통적 표현 대신 이미지와 신체 움직임을 강조해 전쟁 속 여성들의 억압

된 욕망과 생존의 조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침묵과 호흡, 군무 등 신체적 표현을 통해 전쟁과 공동체 속에서 통제되는 여성의 삶을 감각적으로 전달하며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작품의 서사는 한국전쟁 이후 남성들이 사라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노인과 여성들만 남은 공동체에서 공비에게 바칠 양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에서 내려온 규복과 점례가 사랑에 빠지면서 이야기 전개된다. 전쟁과 이념 속에서 흔들리는 공동체와 인간의 욕망을 담아낸 작품이다.

연출상은 극단 시민 김민호 연출이 '산불'로 받았다. 우수연기상은 극단 시민 박경단(산불)과 극단 터 이승하(스무살의 비망록)이 차지했다. 예술상 희곡 부문은 극단 터 박규상, 예술상 음악 부문은 극단 시민 최성인(산불)이 받았으며, 신인연기상은 극단 시민 문창주(산불)에게 돌아갔다.

폐막식에서는 '조선판스타' 우승자인 김산옥 명창이 축하공연을 펼쳤으며 박현정 동구의원, 박현순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이영민 한국연극협회 이사, 원광연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과 지역 연극인들이 참석해 축제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임홍석 광주연극협회 회장은 "광주연극제가 마흔 번째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의 헌신과 후배들의 열정 덕분"이라며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함께 숨쉬며 완성되는 예술인 만큼 앞으로도 서로의 예술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국립무용단 명작 '몽유도원무' ACC 무대

내달 3-4일 예술극장2

조선시대 화가 안견의 걸작 '몽유도원도'를 몸짓으로 풀어낸 창작무용이 광주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4월3-4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몽유도원무'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찾아가는 국립극장' 공모사업 선정작이다.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국립예술단체의 우수 작품을 지역 관객에게 소개해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몽유도원무'는 이상향을 향한 인간의 염원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시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한국적 미감과 동시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안무,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군무가 조화를 이루며 한국 창작무용의 미학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최명진 기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초4-고1 청소년 대상...20일까지 접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오준혁)이 2026년 상반기 청소년 단원을 수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합창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광주 거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지원자는 네이버폼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디션은 21일 오후 2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열린다. 심사는 지정곡 1곡과 음정 테스트, 면접으로 진행된다. 지정곡은 '그네 친구(설재호 곡)', '따오기(윤영국 곡)', '하늘나라 동화(이강산 곡)' 가운데 한 곡을 선택해 준비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20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합격자는 오는 4월부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단원에게는 전문적인 음악 교육과 함께 공연 수당, 활동지원금(장학금) 지급, 단복과 간식 제공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이 지원된다. /최명진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선정

AI 기반 찾아가는 문해·디지털 교육 지원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광주인재개발교육진흥원(원장 송형길)과 협력해 추진하는 광역 단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한글햇살버스'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한글햇살버스'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부 공모 사업이다. 지역 현장을 방문해 실생활 중심의 기초 문해교육과 디지털 활용 능



력 향상을 돕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국립광주과학관은 인공지능(AI) 과학·디지털 교육 전문가의 역량

을 바탕으로 기초 과학 원리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단계별 인공지능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과학관이 보유한 전시·체험 콘텐츠와 연계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체험과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통과정과 선택형 기초·심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단계별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공통과정에서는 '내 손안의 인공지능 비서'

프로그램을 통해 챗지피티(ChatGPT), 제미니(Gemini) 등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방법을 배우고, 인공지능 로봇과 오목 대전 체험을 통해 기술의 개념과 활용 분야를 이해하도록 했다.

기초과정에서는 음성 합성 기술과 연계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교육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진 기반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심화과정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창작, 건강관리 인공지능, 실물·디지털 융합 로봇 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문기현 과학교육실 연구원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과학관의 공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풍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